

TEDTalks, Louie Schwartzberg

The hidden beauty of pollination

00:11	TED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제 머리 너머로 나타날 것이지만, 가장 놀라운 생각들은 바로 제 발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수분과 같이 우리가 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생명의 작은 부분들이죠. 5천만년이 넘는 시간동안 꽃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함께 진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벌, 박쥐, 벌새, 나비와 같은 수분 매개자들에 대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00:43	저는 35년 동안, 하루 24시간, 매주 빠지지 않고 꽃을 저속 촬영해 영상을 담았습니다. 꽃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춤과도 같습니다. 제게 경이로움을 선사하고 제 마음을 열어줬죠. 저는 아름다움과 매력이 생존을 위한 자연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지구를 부양하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상기시켜줍니다.
01:16	벌집 군집 붕괴 현상과 사라져가는 벌들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행동을 취할 동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식용하는 과일과 채소의 1/3 이상을 수분 매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광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그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이며, 그것을 돌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01:44	제 과학 자문가들에게 물어봤던 것이 제가 수분 매개자들의 행동을 영상에 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수분 매개자들을 동기를 부여할까요? 자문가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위험과 보상 때문입니다." 저는 순진한 아이처럼,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들이 말했죠. "음, 그들은 생존하기 바라니까요." 또 물었죠. "어째서요?" "음, 번식을 위해서요." "음, 왜요?" 저는 자문가들이 "음, 섹스에 대한 것이죠."라고 말할거라 생각했습니다. 제왕나비 전문가인 칩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해지고 닳습니다."
02:22	그 말이 제게 충격을 줬습니다. 생명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메카니즘으로서, 우리를 관통하고 생명의 진화에서 우리에게 관계를 만드는 생명력으로서 자연이 번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힘든,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 사이의 이 교점은 진실로 마법의 순간입니다. 생명이 거듭하여 다시 재생되는 신비한 순간입니다.
02:54	자, 여기 제 영화의 달콤한 장면을 보여드리죠. 여러분이 맛보고,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정원을 수분시키기 위해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항상 꽃 향기를 맡는데 시간을 내어보고,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채우도록 하며, 경이감을 재발견해보세요. 자, 영화의 몇몇 장면들을 보시죠.
03:14	(음악)
07:18	(박수)
07:26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7:30	(박수)
07:34	감사합니다.
07:36	(박수)